육아정책 Brief

통권 제 10호 | 발행인 : 이영 | 발행일 : 2013년 01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01 January

누리과정 비용 지원, 현실적 방안 마련되어야…

Ⅰ. 서론

2013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됨. 학부모 지원 금액은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예정임.

- 정부는 취학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 3~5세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하였음.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될 예정임.
-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액은 2012년 20만원부터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 ▸ 20만원('12년)→22만원('13년)→24만원('14년)→27만원('15년)→30만원('16년)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누리과정의 무상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는 낮음.

- 그러나 실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지원금과의 차이가 커서 학부모가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학부모의 무상교육 정책 체감도가 낮고 증액에 대한 요구가 큼.
- 한편, 누리과정 재정 지원에 있어서 학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교사 인건비 등을 기관에 지원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룰 것인지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Ⅱ. 누리과정 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

- 학부모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금액 지원 계획보다 더 증액하여 지원해 주기를 희망함.
  - ▸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과반수 이상(54.7%)이 누리과정 학비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Ⅱ장에서 제시한 의견조사 결과(표 2 제외)는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황성온·김미나가 2012년도에 수행한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2013~2017' 연구에서 서울·경기지역 거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86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델파이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임.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에 국한한 것임.

▸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는 '현재의 정부 지원 금액을 유지해도 된다'에 65.0%,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유아 학비 증액이 필요하다'에 71.7%가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의 증액을 바라고 있음.

〈표 1〉 누리과정 적정 지원 금액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단위: %(명)

구분		정부 지원 계획 유지	유아학비 증액 필요	계(수)
전체		45.3	54.7	100(86)
자녀 재원 기관 유형	국·공립	65.0	35.0	100(40)
	사립	28.3	71.7	100(46)

● 이는 공립유치원의 교육비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과의 차액을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공립유치원의 교육비는 59,000원,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전국 평균 314,000원(대도시는 50~60만원을 넘는 수준)으로 조사됨.[1)]

▸ 유치원 교육비의 실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5세 학부모의 경우 교육비 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아직 비용지원을 받지 않는 3, 4세 학부모는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67.9%와 7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경우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아직 비용지원을 받지 않는 3, 4세 학부모의 경우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67.9%, 7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유치원보다 교육비가 높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조금 부담	매우 부담	계(수)	$x^2(df)$
전체		7.7	12.4	18.1	42.3	21.3	100.0(671)	
자녀 연령	3세	2.8	11.6	17.7	38.6	29.3	100.0(187)	-
	4세	4.4	6.6	12.9	53.1	22.9	100.0(241)	
	5세	10.6	18.8	23.9	34.1	12.5	100.0(242)	
자녀 재원 기관 유형	국·공립	19.3	33.7	26.7	18.0	3.3	100.0(150)	176.6(4)***
	사립	2.8	7.5	15.8	48.2	25.7	100.0(531)	

자료: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p < .001$

●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누리과정 지원 적정 유아학비 금액은 월 30~40만원 수준임.

▸ 학부모들의 누리과정 비용 희망 금액은 월 30~40만원에 44.7%, 월 40~50만원에 27.7%, 50만원 이상에 17%가 응답함.

▸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40~50만원에 30.3%, 50만원 이상에 18.2%가 응답하여 더 많은 금액을 희망함을 알 수 있음.

〈표 3〉 누리과정 지원 적정 유아학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단위: %(명)

구분		30만원 미만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이상	계(수)
전체		10.6	44.7	27.7	17.0	100(47)
자녀 재원 기관 유형	국·공립	14.3	50.0	21.4	14.3	100(14)
	사립	9.1	42.4	30.3	18.2	100(33)

Ⅲ.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 차등 지원에 대한 의견

● 유아학비 차등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면, 학부모들은 가장 적당한 기준으로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을 선호함.

▸ 차등 지원시, 그 기준으로 66.3%가 가구소득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부모취업여부에는 19.8%가 응답함(그림 1 참조).

학부모들은 누리과정은 무상 지원, 방과후과정은 소득별 차등지원 방식을 가장 선호함.

● 기본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에 있어서 누리과정은 무상 지원을, 방과후과정은 소득별 차등지원을 가장 선호함(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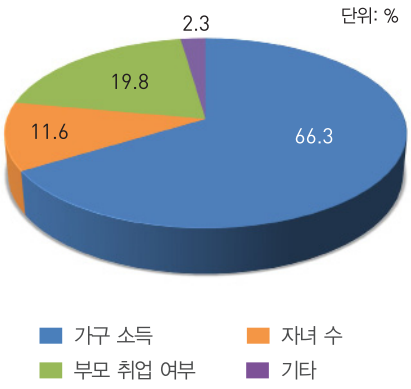
▸ 다음으로 기본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을 모두 무상으로 하는 것에 26.7%가 응답하고, 기본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을 모두 차등지원 하는 것에는 15.1%가 응답함(그림 2 참조).

▸ 이렇게 볼 때,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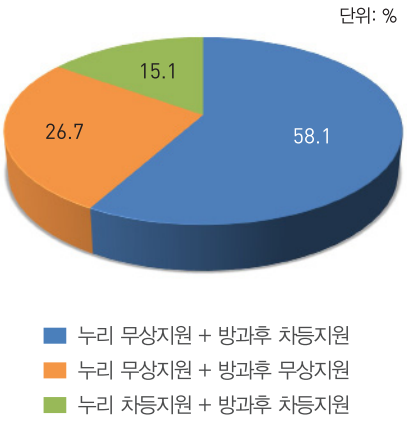
유아학비(방과후 포함) 부담 비율은 가구소득 대비 5% 이내를 가장 선호함.

● 가구소득 대비 유아학비(방과후 과정 포함)의 적정 부담 비율은 5% 이내를 가장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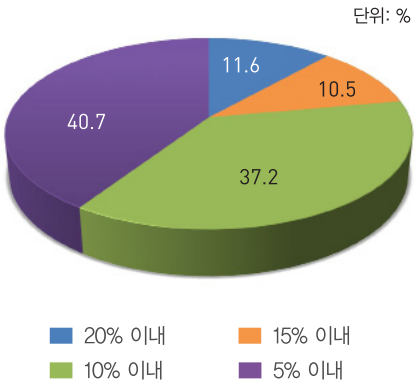
▸ 자녀 1명에 대한 유아학비 부담 비율은 가구소득 대비 5% 이내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0.7%, 다음으로 10% 이내가 37.2%를 차지하여 77.9%가 5~10% 이내를 선호함(그림 3 참조).



[그림 1] 유아학비 차등지원 기준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그림 2]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비용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그림 3] 가구소득 대비 적정 유아학비(방과후 포함) 부담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Ⅳ. 누리과정 비용 학부모 지원과 기관 지원의 논의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기관의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므로 두 가지 방식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학부모 지원과 기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두 가지 방식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들 간의 자유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유아교육의 방향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임.[2)]

▸ 한편 교사 인건비 등 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및 질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유용한 방법임.

● 현재 정부의 누리과정 비용 지원은 학부모 지원 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시행 이전부터 교사 수당 명목으로 전국 평균 월 460,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아 종일제 지원 비용을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으로 대체하여 월 20~30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음.

● 단, 학부모 지원과 기관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갈 경우,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것인지를 재고해야 함.

V. 누리과정 비용 지원 방안

향후 누리과정 표준교육비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하고, 모든 가정의 자녀 교육비 부담 비율을 가구소득의 5% 이하로 유지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학부모 지원 금액을 현실화 함.

▸ 향후 누리과정 표준교육비에 근거하여 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책 체감도를 높임.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3] 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는 400,000원 수준임.

● 방과후 과정을 포함하여 기본 누리과정외의 추가 비용은 가구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원함.

▸ 모든 가정의 자녀 교육비 부담 비율을 가구소득의 5% 이하로 유지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향후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더욱 낮추어 감.

누리과정의 학부모 비용 지원 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 시설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원비를 낮추어가는 방안이 필요함.

● 공공성, 책무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비 책정시 표준교육비를 준수하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단계적으로 지원함.

▸ 표준교육비에서 기관 지원 교사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소요 부분을 기관 교육비로 책정하도록 하여 원비를 낮추어가는 방안임.

▸ 이러한 기관의 경우, 정부의 누리과정 학부모 지원 금액 연도별 증액과 맞물려 조기에 부모 추가 비용 부담이 전혀 없게 될 것으로 예상함.

1)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2). 누리과정 관련 예산 통계 자료.
2) OECD(2008). Starting Strong(Ⅱ).
3) 우명숙·박은혜·김지하·김현철·김중환(2012).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장명림 선임연구위원 mlchang@kicce.re.kr